



제 1회 모두들의 공동주거 입주설명회

모모 짜! 두더지들

역곡에 살고 있는
모두들 전속가수

버지





제 1회 모두들의 공동주거 입주설명회



좁고 별도 잘 들지 않는 방

어느덧 익숙해진
단출한 수저 한 벌의 밥상





적막이 싫어 음악을 틀어놓고
잠을 청하는 외로운 잠자리



그리고
이 정도의 일상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힘겨운 알바



자기만의 구덩이 속에
틀어 박혀 살아가는 두더지의 삶처럼
외롭게 살아가던 도시의 청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과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경쟁하지 않고,
자신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나만의 것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우리 모두의 것을 조금씩 늘려나가자.



**가난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자유롭게 살아가자.**





<시작> 왜 '나'는 모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같이 잘 살아보자는 친구의 제안에
“너부터 잘살아”라고 대꾸하던 땡땡

불안하지만, 함께라서 든든했던
텐트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범삼



달팽이처럼 느리게 요리가 늘며
요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거리에 감동하며
마을에서 친구들과 요리를 나누고 싶은
순대



가난한 청소년들과 마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픈
가난한 청년, 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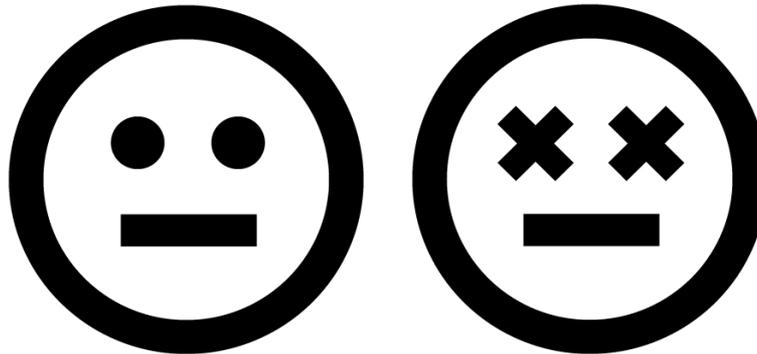
<시작> 왜 우리는 부천 역곡이라는 '지역'에서 할까요?



매년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지만 쉽게 떠나가는 지역, 역곡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껏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내 집이 있는 지역, 역곡
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만들어나가는 작은 변화의 시작점, 역곡



<시작> 왜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 했을까요?





<시작> 왜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 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들

부천
역곡

공급자 조합원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원 차입을 하는
개인과 법인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준조합원)

지역활동에 참여 또는 후원
하고자 하는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조합운영을 위한
실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조합원

두더지하우스





<상상>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두더지 하우스

꿈을 품고 상경했지만,
집세를 내기 위해
일하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보증금 마련

함께 이용하는
생활가구

25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 분담금

생활재 공동구매
(쌀, 김치,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상> 외롭지 않은 두더지 하우스(교류와 환대)

혼자 먹는 딱딱한 밥,
혼자라서 불안한 집생활,
아플때 서러운 자취생활
혼자가 아니게 된다면?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집

정기적인
조합원 네트워크 활동

다양한 동네모임 지원



<상상> '공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더지 하우스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시간
필요한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
거실을 공유

마당을 공유하여
함께 가꾸는 작은텃밭

우리집 부엌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상 공동체

자주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꼭 필요한
생활용품 공유



<상상> 지역사회 속에서 '협동'하는 두더지 하우스

청년과 탈가정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

독거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집

탈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과 함께 살아가는 집



유기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집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더불어 사는 집



<상상>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주거협동조합

심심하고 조용한
우리 동네,
'재밌는 일 없을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을잔치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두레(기금) 프로젝트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상상> 일인가구 이웃들과 함께 사는 주거협동조합

트럭 쉐어링

주거권 상담소
(집 계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가이드, 집주인과의 마찰 상담,
자취 가이드북 제작 등)

이사 품앗이

택배 서비스



혼자서는 힘들어.
의지할 곳이 필요해!



<상상>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주거권 운동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

부담할만한 집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집세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쫓겨나지 않는 집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이
곧 사회를 변화 시키는
활동



<현실> 마을에서 모두들은 이런 활동을!

모여라! 두더지들

역곡 지역
청년 주거협동조합을
꿈꾸는 사람들의 랑데뷰



<모여라! 두더지들>은?

제4차의 구멍이에 걸쳐 자기 문제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모여서 '지금 여기서부터'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역곡지역에서 모인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실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내집 마련'이 어렵다면 '우리의 집을 만들자!' 주택협동조합 만들기!

도시 두더지의 공동생활 탐구

첫 번째 만남

협동조합 DIY

주로 말하는 사람 박주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일시 11월 6일 화요일 늦은 7시
장소 성곡회대학교 새천년관 2207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형 받고 있는 협동조합
가진 것도 없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각 주체들의 문제와 환경에 맞추어
특약특별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상상해보자!

두 번째 만남

나랑 같이 살래?

주로 말하는 사람 지음(게스트하우스 빈집)
장훈(성곡회대 노숙주민 공부는 소리)

일시 11월 13일 화요일 늦은 7시
장소 부천시 유한대학 사회직기업 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

한 자못아래 아랫이서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내 것이 많아질수록 공립해지고,
내 것을 모두의 것으로 나눌수록 필요로워진다?
'함께 살기'에 대한
설렘과 즐거움, 힘겨움, 두려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 번째 만남

동네에서 함께 살기

주로 말하는 사람 이수이(청년주택협동조합 (이웃))

일시 11월 20일 화요일 늦은 7시
장소 부천시 유한대학 사회직기업 지원센터
3층 세미나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의 친구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수원의 구도심에서 동네 사람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활동을 즐겁게 꾸려나가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modooduel@gmail.com

www.facebook.com/modooduel

cafe.naver.com/modooduel

*본 행사는 부안문화재단 우리도시 문화기 조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현실> 마을에서 모두들은 이런 활동을!

건강한 식생활

+



즐거워 요리

+



새로운 동네 친구

||



친구계결

모두들의 반찬 모임

우리 동네 시장에서 그리고 친구의 텃밭에서
구한 제철 채소와 해산물을 이용해
매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합니다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요리도
즐겁게 배우고
심심한 동네 생활에
활력을 줄 새로운 동네 친구도 만들고 ♪





<현실> 마을에서 모두들은 이런 활동을!





<현실> 마을에서 모두들은 이런 활동을!

역곡 두더지통신원 모이짜!



조용하고 지루해보이는 우리 마을, 부천 '역곡'
저마다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함께 마을을 탐험합니다.

어느새 동네친구가 된 이웃들과 함께 바라본 우리동네와 우리동네 사람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네살이의 매력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굴 앞에서 노크합니다. "똑똑! 우리 집 밖에서 만나요!"

함께 만들어요! 역곡두더지통신원

* 역곡두더지통신원은
"나와 이웃, 동네를 이어주는 동네 책"입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우리동네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요.

- 오리엔테이션 : 현주리와 함께 하는 마을살이 수다회 (8월 12일)
- 은유와 함께하는 "두더지 글쓰기 워크숍" (8월 14, 19, 21, 28일/4회)
- 로맨스조와 함께하는 "어슬렁 사진 워크숍" (8월 22, 29일/2회)
- 박현주와 함께하는 "쓱쓱 디자인 워크숍" (8월 26일/1회)

* 시간 : 오후 두시에서 다섯시 * 장소 :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 (주) 디자인포편

*본 사업은 부천문화재단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현실> 두더지 하우스 1호를 소개합니다!



소비자 조합원
: ??

두더지 하우스 안에서
일상을 채워갈 사람들

직원 조합원
: 개미, 땡땡, 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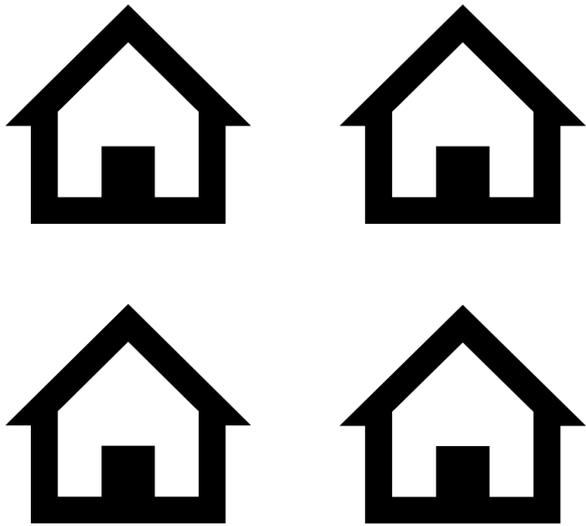
협동 주거 마련을 위한
실무 담당

공급자 조합원
: 공동체 은행 빙고

공동체 모델의 확산



<현실> 발기인이 되어주세요!



내 방, 내 집이
더 넓어 집니다!

역곡에 사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집’의 의미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 청년 주거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들을 후원해주세요!

천덕꾸러기이기만 했던 '집'
나에게 아무 의미 없던 '동네'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싶은 집,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보아요!

공동주거에 필요한 세간을
후원해주세요!

(세탁기, 냉장고, 레인지, 선풍기, 책장, 책상, 의자, 요리도구 등등)

